

누리에 떨키는 주체조선의 종업과 키위

공화국창건 75돐을 승리의 대축전으로 빛나게 경축한 천만인민의 가슴마다에는 위대한 강국의 인민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이 한껏 넘쳐나고있다.

국제사회도 세계의 최강국인 공화국에 대한 칭송의 목소리를 터치고있다.

《가속적으로 강해지는 조선, ...5년, 10년후의 조선을 상상하기 어렵다》, 《조선의 불가항력은 참으로 놀라지만 하다》...

세계가 놀라고 부러워하는 공화국의 최강의 힘은 단지 군사적힘으로만 계산되는 것이 아니다.

조선에는 핵무기보다 더 위력한 정치사상적합, 일심단결의 거대한 힘이 있다. 령도자와 인민이 사상과 뜻, 정오이 굳게 뭉친 일심단결의 힘이야말로 세계에서 오직 조선만이 가지고있는 가장 위대한 힘이다.

세계적인 최강국인 조선을 당할자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

지금 세계는 불공정한 국제질서를 자주와 정의의 힘으로 허물고 세계자주화위업을 추동해나가는 위대한 나라라, 정의의 대변자를 보고 있다.

조선은 자기의 주권과 결심에 따라 자주권을 당당히 행사하여 세계정치무대의 중심에 우뚝 솟아오른 자주강국이다.

절대적힘을 비축한 최강국

나라와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것은 자주권과 존엄이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은 우리 국가가 창건된 첫날부터 공화국을 눈여겨 보며 가시처럼 여기면서 압살의 광풍을 몰아왔다. 창건된지 2년밖에 안되는 공화국을 요람기에 잃어려고 조선전쟁의 불도 질렀고 쓰디쓴 참패를 당한 후에도 반공화국책동에 광분하였다.

하기에 공화국은 나라의 존엄과 자주권을 지키고 인민의 안녕을 지키기 위해 국가방위력강화에 큰 힘을 넣었다.

지나온 10여년의 나날들에 만도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병진노선을 제시하고 그 실현에 박차를 가하여 국가핵무력완성의 역사적대업을 실현하고 핵무력정책의 법화로 당당한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불가역적인것으로 고착시켰다.

지난 7월 공화국이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을 맞

으며 성대하게 진행한 열병식은 세계적인 최강국인 공화국의 존엄과 위엄을 만방에 다시금 과시한 뜻깊은 계기로 되었다.

그 누구도 감히 넘볼수 없는 무진막강한 국력을 비축한 공화국의 위상이 세계는 경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

《조선은 정말 신화적인 나라이다》, 《조선이야말로 진짜 세계의 유일초대국

나라와 민족이 사대주의를 하면 중당에는 예측과 파벌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된다

것은 력사가 보여주는 진리이다.

자력자강만이 나라와 민족의 부강변영을 담보하는 유일한 길이다.

자력갱생, 자력자강은 조선의 불변법칙이다.

공화국은 창건된 첫날부터 오늘까지 자력갱생을 변영의 기치로 높이 추켜들고 부흥

강국의 활로를 열어나가고 있다.

지난 10여년간은 공화국이 무엇으로 역세고 강항가를 보여주는 속도वाद 같다.

쉽게는 넘을수 없었던 력사적단계에서 공화국이 필승의 무기로 더욱 역세게 들어선것은 자력자강의 기치였다.

공화국의 강대성을 상징하는 절대병기들은 과학의 산물이기 전에 자력자강의 혁

명정신이 버려냈기며 교육과 보건, 국가경제의 전면적 발전을 위한 중요목표들이 성과적으로 달성되어가는 현실 역시 자력자강의 고귀한 결실들이다.

최근년간 일떠서 인민들에게 사회주의문명과 혜택을 안겨주고있는 송화거리와 보통강안다락사주역, 화성거리와 대평거리의 현대적인 살림집들, 증평은실농장과 려포은실농장, 김화군의 지방공업공장들, 훌륭한 농촌살림집들만 놓고보아도 자력자강의 위대한 생활력을 잘 알수 있게 한다.

지금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산생되는 정치적분란과 분쟁, 대해와 위기속에 앞날에 대한 희망을 잃고 삶마저 포기하고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인민이 바라보는것은 무엇이나 세계적수준에서 이루어지고있다.

하기에 국제사회는 《그 어느 개인이나 국가도 영원히 위기와 충격에 직면하지 않는다고 담보할수 없는 불확실성으로 충만된 오늘의 세계에서 경제강국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선의 전진은 참으로 불가사의하다.

조선이야말로 대단한 잠재력을 가진 나라이다.

나라는 완전히 새로운 강력한 경제체로 될수 있다》, 《조선에서는 해마다 사회주의 문명을 자랑하는 호화주객들과 문화정서생활기자들이 우후죽순처럼 일떠서고있다.

다. 미국의 가증되는 제재와 압살공세속에서도 날로 높아가는 인민의 웃음소리는 곧 조선의 승리를 의미한다》, 《조선은 말그대로 자기에 필요한 모든것을 자체의 힘과 기술로 창조해내며 번

영의 꿈을 이루어가고있다.

가장 어려운 환경에서 최상의 결실을 거두어가는 영웅조선의 불굴의 기상에 탄복을 금할수 없다》고 경탄하고있다.

그 어떤 세파와 동란에도 끄떡없이 자력자강으로 국가부흥의 새시대를 열어나가는 공화국이 가까운 앞날에 인민의 천하제일락으로 떨칠 것이라는것이 세인의 일치한 평이다.

세계정치의 중심국

아무리 발전된 경제력을 자랑해도 령강들의 비유나 맞추면서 굴신거리고 자기의 리익이 침해당하면서도 추종해야 하는 나라는 사실 가려한 정치적비승순에 불과하다.

민족자존은 곧 주체이며 주체는 우리 공화국의 상징이다.

사회주의와 세계자주화위업의 운명을 걸머지고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정치적압박과 군사적공갈, 경제적압박속에서도 주체사상이 가리키어나가는것이 공화국의 기상이다.

자주강국은 위대한 지도사상과 그 구현인 자주정치의 빛나는 결정체이다.

자기의 올바른 정치철학을 가지지 못한 나라와 민족이 사대주의를 하고 자기의 신념대로 모든 일을 배짱있게 내밀수 없는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자주강국은 위대한 지도사상과 그 구현인 자주정치의 빛나는 결정체이다.

자기의 올바른 정치철학을 가지지 못한 나라와 민족이 사대주의를 하고 자기의 신념대로 모든 일을 배짱있게 내밀수 없는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자주강국은 위대한 지도사상과 그 구현인 자주정치의 빛나는 결정체이다.

자기의 올바른 정치철학을 가지지 못한 나라와 민족이 사대주의를 하고 자기의 신념대로 모든 일을 배짱있게 내밀수 없는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자주강국은 위대한 지도사상과 그 구현인 자주정치의 빛나는 결정체이다.

자기의 올바른 정치철학을 가지지 못한 나라와 민족이 사대주의를 하고 자기의 신념대로 모든 일을 배짱있게 내밀수 없는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자주강국은 위대한 지도사상과 그 구현인 자주정치의 빛나는 결정체이다.

자기의 올바른 정치철학을 가지지 못한 나라와 민족이 사대주의를 하고 자기의 신념대로 모든 일을 배짱있게 내밀수 없는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자주강국은 위대한 지도사상과 그 구현인 자주정치의 빛나는 결정체이다.

자기의 올바른 정치철학을 가지지 못한 나라와 민족이 사대주의를 하고 자기의 신념대로 모든 일을 배짱있게 내밀수 없는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자주강국은 위대한 지도사상과 그 구현인 자주정치의 빛나는 결정체이다.

자기의 올바른 정치철학을 가지지 못한 나라와 민족이 사대주의를 하고 자기의 신념대로 모든 일을 배짱있게 내밀수 없는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위대한 태양의 나라

누리에 떨키는 조선의 높은 존엄과 국위는 만고절세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비범한 예지와 령도력, 투철한 자주적신념과 배짱, 애국헌신이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첫 기술에서 인민의 의사를 담아 국가발전의 백년대계의 전략을 천명하시였으며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변천되는 력사발전의 추이를 환히 꿰뚫어보시고 사회주의의 국건설의 위대한 실천강령과 불멸의 지침들을 명백히 밝혀주시였다.

또한 그처럼 간고하고 복잡한 형세하에서도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로 모든 분야에서 세인을 경탄시키는 눈부신 기적을 안아오시였다.

동서고금의 력사는 어느 특정한 분야에 업적을 남긴 이름난 정치가들, 위인들이 기록하고있다.

그러나 경애하는 원수님처럼 그토록 짧은 기간에 모든 분야에 걸쳐 눈부신 기적을 다채단으로 이루어내신 위인중의 위인을 알지 못하고있다.

하기에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을 《세계의 태양》, 《세계정치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지도자》, 《위대하고 훌륭한 령도자》, 《세계적으로 제일 강하신분》이라고 높이 칭송하고있다.

세계가 우러르는 회세의 위인을 높이 모시어 공화국인민의 존엄이 만방에 빛나고 경애하는 그의 현명령도가 있어 공화국의 국위가 온 세상에 힘있게 떨치고있는것이다.

불세출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어 공화국은 위대한 강국의 존엄과 국위를 더욱 높이 떨쳐갈것이다.

김금순



9월이라지만 아직도 해별은 따갑기만 하다.

독염에 한껏 달아오르는 몸을 식히려고 사람들의 발걸이 저저마다 바다가나 수심속 경치좋은 피서지로 향한다.

저 동해기슭의 마진머리 시중호, 송도원해수욕장과 서해의 풍수호, 천하절경 묘향산과 칠보산 그 어디 가나 인민의 행복담친 웃음소리 그칠줄 모른다.

문명의 휴양지들과 풍치수려한 명소마다에 꽃피어나는 인민의 웃음꽃향기에 이 몸도 흥뻑 났을지라도 깊어지는 생각이다.

사계절 질졸 모르는 화창한 이 행복과 즐거움의 기쁨은 과연 어디서 어떻게 오는것인가.

몇 해 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김정은원수님께서 강원도양양군을 찾으신것은 그날이 눈앞에 밝혀졌다.

원산지방의 낮최고기온이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던 초복의 일요일, 그날 오후 시간 현대적으로 꾸러진 양묘장을 돌아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제대군인부부의 살림집을 찾으시어 가정살림현황을 일일이 알아보시였다.

후날 그들내외는 그이의 웃이 온통 땀으로 뭉쳐 젖어든지 너무도 안타가와 심통기를 들떠서던 날씨가 어찌나 무더웠던지 더운 바람이 나오는데만 같아 눈물이 나도 속상했다며 그때의 심정을 절절히 토로하였다.

삼복철과 더불어 전해지는 자애로운 아버지의 헌신의 이야기가 어찌 이들만의 토로만 이가.

레년에 없이 무더웠던 이해 삼복철의 날과 달들이 또다시 주마등마냥 흘러간다.

7월 11일에 시작된 초복으로부터 8월 10일 말복에 이르는 한 달여간에 신문과 TV방송으로 전해진 우리 원수님의 혁명활동소식은 무려 10여차, 삼복철은 끝

났어도 아직 채 가시지 않은 무더위의 오늘까지도 이어가신 현지지도는 수심어차.

정녕 불리보지만 해도 가슴뻐 근하다.

불뎀이를 안은듯 달아오르는 격정속에 눈시울 뜨지기 어려운 는 송고한 화폭들.

사랑하는 인민들의 행복담친 삶과 미래를 억척의 힘으로 지켜주시려 경애하는 원수님 독염을 뚫고 찾으시였던 대륙간단도미사일 《화성포-18》형의 시험발사

의 《3북》이 《30북》, 《300북》으로 끝없이만 발사되는것이 아니라.

지금도 공화국 창건 75돐경축

대공원이 펼쳐진 만수대의사당 앞광장에 진행하던 수십만인민의 격정과 환희, 기쁨과 회의의 환호성이 거대한 진폭으로 메아리쳐나온다.

정녕 그것은 불면불휴의 애국헌신과 열화같은 인민사랑으로 공화국의 존엄과 국력을 만방에 떨쳐주시고 이 땅에 인민의 웃음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 높이 울려 퍼지는 만복의 세월을 펼쳐주시는 절세의 애국자, 자애로운 아버지에 대한 인민의 다함없는 총성과 뚫어오르는 감사의 정이 분출이였다.

하기에 이 시각도 인민을 위해 세계각지는 자애로운 아버지의 위대한헌신의 자욱자욱을 눈물결에 따라서서며, 경애하는 그이의 안녕을 바라고 또 바라며 이 나라 천만자식만이 아닌 이 땅의 산천초목도 무뎀어 간절히 소원하고 또 소원하고있다.

이 한밤도 먼길 가실 원수님 생각하며 우리 마음 자욱자욱 간절히 따라섭니다

우리 운명 우리 행복 원수님께 달려있기에 아침저녁 소원은 하나 원수님의 안녕입니다

...

...

...

...

말마친 잡지를 보던 나는 한 기사에서 눈길을 땀수 없었다.

어느한 자본주의나라의 입신부가 병원을 내뚫이나 해마다가 돈이 모자라 끝내는 길거리에서 아이를 낳고 숨지였다는 사실...

우리 사회, 우리 생활에서는 상상도 못할 사실앞에서 온몸을 엎드려 감탄과 함께 가슴이 뭉클할수 없었다.

곧 태어날 새 생명을 지닌것으로 하여 가정과 사회의 더없는 축복과 보호를 받아야 할 그 녀인의 참혹한 죽음이 같은 녀성인 나에게 안겨주는 충격은 너무나도 컸다.

문득 나의 뇌리를 치는 다른 한 녀성의 모습이 있었다.

연제인가 취재길에서 만났던 서성구역 상용소학교 교장 한미화녀성의 이야기.

《베스표 한장을 들고 나선 걸음이었어요》

아직도 귀에 쟁쟁하다. 20여년전 한미화녀성은 두번째로 임신하게 되었다.

정기적인 검진을 받기 위해 평양산원으로 가는 길에 그가 들고 나선것은 다름아닌 작은 베스표 한장이였다.

우리 공화국에서는 무로나 다름없는 베스표였다.

그러나 그 베스표 한장을 가지고 산원행베스에 오른 그때부터 시작된 국가의 혜택이 과연 얼마나 크나큰것인지 그는 그때 다는 알수 없었다.

무심코 들어선 산원에서 그는 깜짝 놀라게 되었다.

종합검사에서 세쌍둥이임신이 확정되고 임신유지불가능이라는 진단을 받았던것이다.

의사, 간호원들의 관심속에 증환자나 되는듯이 밀치며 정히 실려 그가 옮겨간 곳은 입원실이였다.

그때로부터 그의 임신 전 기간은 고스란히 산원의 침대에서 흘러갔다.

임신 8개월만에 낳은 아들 세쌍둥이는 어머니의 몸에서 곧 보육기로 옮겨졌다.

수필

베스표 한장의 무게

3대의 보육기를 돌려싸고 값비싼 약들이 아깝없이 흘러들며 또 다시 수개월.

출생 당시 몸무게가 겨우 1.2kg밖에 안되던 세쌍둥이 돌체도 정상체중으로 되어 녀성은 마침내 평양산원문을 나서게 되었다.

한몸에는 다 안기 어려운 사랑의 선물을 한가득 실은 차가 수많은 의사, 간호원들의 바래움을 받으며 그를 따라왔다.

3개의 은장도며 모포와 솜내, 세라, 양복지, 꿀, 졸인젖, 사랑가루...

베스표 한장을 들고 집을 나서서 200일간의 나날에 받아안은 혜택과 이 모든 선물앞에서 한미화녀성은 그냥 눈물을 흘릴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오직 보담의 의무만이 있다고 생각해온 마음뿐이었던 그를 당에서는 사회주의애국공로자로, 구역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영광의 단상에 또다시 내세워주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달려온 후대교육의 33년세월이였다.

그러나 오직 보담의 의무만이 있다고 생각해온 마음뿐이었던 그를 당에서는 사회주의애국공로자로, 구역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영광의 단상에 또다시 내세워주는 것이 아닌가.

그의 남다른 인생이 나에게 안겨주는 여운은 컸다.

신순영

여본적이 없이 나라에서 굶어야 육이아 떠날때 키우고있는 아이들을 바라볼 때마다 문득 떠오른 생각은 무엇이었나?

(내가 만일 이 제도가 아닌 저 자본주의에서 우리 아이들을 낳았다면?)

너무도 분명하고 달리는 될수 없는 운명이었다.

그럴수록 눈물겹도록 곱잡고 아름답게 사랑에 무엇으로 보답하라 하는 불같은 생각으로 되곤거리라는것도 잊고 정신없이 다시 학교로 발걸음을 돌리곤 하였던 그였다.

몸에 솟구치는 힘과 열정을 성스러운 교단에, 새별같은 눈을 감싸고자 자기를 바라보는 학생들에게 아깝없이 쏟아부었지 않았던 것이었다.

그렇게 달려온 후대교육의 33년세월이였다.

그러나 오직 보담의 의무만이 있다고 생각해온 마음뿐이었던 그를 당에서는 사회주의애국공로자로, 구역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영광의 단상에 또다시 내세워주는 것이 아닌가.

그의 남다른 인생이 나에게 안겨주는 여운은 컸다.

신순영



단상

삼복에 대한 생각

장과 여러 단위의 중요군수공장들이며 조선인민군 해군 동해함대와 해군사령부, 달아오는 해풍에 항구의 모래알이 보얗게 일어 번지던 신형잠수함의 진수식장.

큰물파헤로 험하다험한 안변군 오계농장과 월랑농장이며 바다물이 허허리던 안식간석지피해복구현장과 금성트랙도르공장, 북중기계련합기업소...

위대한 전승의 명절과 75돐기의 년풍을 아로새기는 공화국의 탄생일을 민족사적인 대경사들로 빛내여주시려 우리 원수님 한몸이 그대로 애국의 열원이 되어 바치신 불같은 헌신과 로고의 그 무수한 낮과 밤들을 어이 다 헤아릴수 있나.

레로부터 삼복의 《복》자는 한자로 《엎드릴 복》으로 써오고있다.

무더운 여름철에 세번은 쉬여가라는 뜻이였다.

하지만 우리 원수님 남들이 다 쉬여가는 삼복철에 초강도강행군길을 가고 또 가시며 인민들에게 더 큰 행복만을 안겨주고계시니 북더위도 무색케 할 그 뜨거운 인민사랑, 열사복무의 헌신속에 이 땅에서는 삼복의 《엎드릴 복》자가 《복 복》자로 바뀌고있다.

그래서 우리 인민 누구나 눈물속에 뜨겁게 터치고 또 터

리금주